네이버 '페이스사인'으로 입장하고 카카오가 빚은 복합문화시설 즐긴다

공연장으로 영토 확장

네이버, 관람객에 페이·멤버십 연결
증강현실 길 안내 기술도 검토 중

카카오, 내년 '서울아레나' 개관
음악·공연 사업과 인프라 연계



/AI가 만든 이미지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형 공연장을 앞세워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색과 메신저 등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두 기업이 공연장을 새로운 이용자 접점이자 사업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멤버십 혜택과 기술 체험 확대에, 카카오는 공연장 운영과 콘텐츠 사업의 수익 다각화에 무게를 두면서 서로 다른 오프라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명명권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부터 3년간 공연장 명칭에 '네이버 아레나'를 사용한다.

네이버가 주목하는 것은 공연장 자체의 운영 수익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사 서비스와 기술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대규모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네이버페이와 멤버십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온라인에서 형성된 이용자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페이의 안면인식 인증 서비스 '페이스사인'이다.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기술을 공연장 입장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지갑 서비스 '네이버페이 월렛'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입장 인증도 협력 대상이다.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증강현실(AR) 길 안내 역시 검토되고 있다. 공연장 내부와 주변 공간을 디지털 환경에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람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연장 방문부터 입장, 이동에 이르는 과정에 네이버의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앞서 서울 종로구 e스포츠 경기장 '지치지 롤파크'의 명명권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 멤버십 전용 축제 '넵페스타'를 개최하며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 왔다. 넵페스타에서는 페이스사인을 활용한 입장과 네이버페이 결제, NFT 스탬프 투어 등을 선보였다.

이 같은 행보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를 오프라인 경험으로 연결하고 멤버십의 체감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연과 행사 참여 경험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카카오는 공연장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만8296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비롯해 중형 공연장과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강점은 음악과 콘텐츠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공연 사업과 대형 공연장 인프라를 연계하면 콘텐츠 기획부터 공연 개최, 팬덤 서비스까지 사업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공연장 대관과 상업시설 운영, 기업 스폰서십 등을 통한 수익 확보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네이버가 공연장을 기술과 서비스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카카오는 공연장 자체를 콘텐츠 사업의 기반 시설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공연시장 성장세도 양사의 오프라인 진출을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연 티켓 판매액은 1조7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중음악 공연 티켓 판매액은 9817억원으로 29% 늘었다.

다만 두 기업의 사업 방식이 다른 만큼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공연장 방문객의 서비스 이용 확대와 멤버십 혜택 강화가, 카카오는 공연장 가동률과 콘텐츠 연계 수익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확보한 이용자 기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면서 공연장이 새로운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기존 서비스 이용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네이버-지멘스, 산업용 AI 협력 논의

지난달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태평양 독일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최수연 대표(가운데)가 지멘스그룹 롤랜드 부시 회장(오른쪽)과 '산업용 인공지능'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모습. /네이버

KT-삼성전자, 야구장 통신망 혼잡 개선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 공동 개발
AI 셀트윈 통해 최적 운영안 도출
트래픽 불균형 최대 34% 개선 확인

KT가 삼성전자와 데이터 사용량이 집중되는 환경에서 기지국 간 트래픽 불균형을 최대 34% 개선했다.

KT는 삼성전자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을 검증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사가 공동 개발한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은 AI가 최적의 네트워크 운용 방안을 도출하고 사전에 검증한 뒤 실제 무선망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AI 셀 트윈'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가상의 통신 환경에서 모바일 사용 패턴과 트래픽 변화를 임의 설정해 다양한 네트워크 운용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기존 운용 자동화 기술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이나 개별 지표를 중심으로 동작하는 반면, 해당 기술은 AI 셀 트윈이 구현한 가상 통신 환경에서 사용자 분포·사용 패턴·네트워크 상태·체감 품질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용 방안을 도출한다.

기술 실증은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진행했다. KT위즈파크에서 수집한 무선망 데이터로 AI 셀 트윈을 구성하고 자율 운용 기술의 인공지능(AI)을 학습시켰다.

야구 경기장은 관중이 대규모로 밀집과 영상 시청 및 공유로 인해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시간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환경이다. 일부 구역에 데이터 사용량이 집중되면 무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어 자율 운용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AI 학습 이후 KT위즈파크 홈 경기에서 자율 운용 기술을 검증한 결과, 양 사는 특정 기지국에 집중된 트래픽이 주변 기지국으로 분산됐음을 확인했다. 기지국간 트래픽 불균형은 최대 34% 개선됐고 특정 기지국에 집중되는 부하는 최대 16% 감소했다. 특히 AI 셀 트윈의 예측 결과가 실제 관측된 무선망 데이터와 높은 수준으로 부합했다.

이번 가을 야구 경기에도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 실증을 이어가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KT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지난 10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야구 경기 중 AI 셀 트윈에 기반한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KT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삼성SDS, 4273억 투입해 60MW급 조성

최대 120MW까지 확장

삼성SDS가 60MW급 구미 AI 데이터센터 착공에 나선다. 최근 그룹사에서 밝힌 60조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나타난 첫 성과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일 삼성SDS는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착공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미 AIDC는 4273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1만4000여평 부지에 초기 전력 용량 60MW 규모로 조성된다. 최대 120MW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AI 인프라로 조성된다. 올해 8월 말 착공 승인을 받은 이후 공사 진행 중으로, 2028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7월 영남을 글로벌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약 6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SDS는 제조·로봇 자동화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구미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AI 산업 생태계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삼성SDS가 30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설계됐다. 인공지능(AI)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비스에 최적화된 고전력 IT 장비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냉각과 전력 인프라 전반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비상전원 체계 등을 구축해 서비스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서버룸에서 발생하는 고발열 제어를 위해 공냉식과 수냉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도 있다. 상대적으로 발열이 낮은 일반 서버에는 공냉식을, 고밀도 GPU 서버에는 물을 순환시켜 열을 식히는 수냉식을 적용한다.

특히 제조 RX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 관계사에게 AI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장에서 정밀 작업을 하는 로봇에게 AI 학습을 시키는 등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조민선 기자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30MW급 AI 데이터센터 준공식에서 현신균 LG CNS 사장(오른쪽 두 번째)과 시나르마스그룹 프랭키 O. 위자야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 하고있다. /LG CNS

LG CNS, 인니 자카르타에 30MW급 준공

해외에 설계·구축·운영 역량 입증

LG CNS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해외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30MW급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 구축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데이터센터 완공 전부터 전체 수용 용량 만큼 고객 확보를 마쳤으며, 국내에서 축적한 AI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역량을 해외 시장에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KMG'가 지난해 발주했다.

LG CNS는 이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확장형 인프라로 설계·구축했다. 고발열 AI 서버의 특성을 고려해 공랭식과 액체냉각을 복합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구조를 도입했다.

이번 사업에는 '원 LG' 통합 솔루션을 적용했다. LG CNS의 DBO 역량을 중심으로 LG전자의 공조 시스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등 그룹 내 핵심적인 전력·냉각·에너지 인프라가 활용됐다.

LG CNS는 현재 후속 단계 구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전용량 400M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 AI 데이터센터 사업 레퍼런스를 활용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AI데이터센터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조민선 기자